

조선어 어휘의 2원체계와 漢源詞

리득춘*

【국문초록】

우리의 어휘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맥을 이루는 것이 한자어체계이다. 한자어는 한자의 수입과 함께 생겨났지만 고유어와 병존하는 하나의 계열로 형성되기 시작한 역사는 신라의 3국 통일과 연계시키는 것이 지당하다.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한 한자어 체계가 우리 글자가 만들어진 중세에 이르러 완전히 확립되었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한자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동의적 관계에 있던 고유어와 한자어 사이에서는 생존경쟁이 생겨 병존하던 데로부터 한자어에 의한 고유어의 교체현상이 체언적 단어, 용언적 단어, 부사적 단어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기원에 따라 조선, 중국, 일본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중국의 한어에서 온 단어그룹들을 漢源詞라 하며 이것은 한자어와 그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원사는 첫째, 어느 시기든 그 기원이 중국어에서 수용한 단어, 둘째, 차용방법상 음독(조선독음)이나 음역(중국음차용)이나에 관계없이 그리고 수용후 고대음에서 현실음으로 치환되었거나 중국음에서 조선음으로 치환되었거나를 막론하고 중국산인 것, 셋째, 현실적으로 한자와 연계되지 않더라도 중국어기원임이 어원적 분석으로 가능한 것으로 그 의미를 규정해야 한다.

또한 한자어는 첫째, 한자에 기초하여 조어한 것 또는 조어된 기성 단어에 기초하여 파생되었거나 합성된 것, 둘째, 조선어 어휘구성속에 들어온 것, 셋째, 한자와 연계되며 한자로 적을 수 있어야 하며 한글로 표기된 것이면 한국음에 맞는 한자로 치환될 수 있는 것, 넷째, 한자로 기록했든 한글로 기록했든 반드시 한자독음규범에

* 중국 연변대학교 조선어학부 교수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주제어 한자어체계, 한어사, 한자독음규범

우리의 어휘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맥을 이루는 것이 한자어체계이다. 한자어는 한자가 수용되면서 그 음과 뜻과 함께 산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중국어를 수용하는데서 시작하여 그 어음이 고유어식으로 고유어체계에 소화되고 그 수량도 증가됨에 따라 이미 훈민정음이 창제될 때 고유어체계와 쌍벽을 이루는 하나의 체계로 확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자어는 대부분의 경우 초기엔 한문 典籍으로부터 인입되어 한자와 더불어 구두어로 전승되다가 장기화하여 한자로 기록되거나 혹은 정음창제 후 정음문자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한자어는 중국어에서 차용한 것 외에 일본어에서 수용한 것과 조선에서 자체로 만든 것까지 서로 어울려 실로 방대한 체계를 이루었다.

한자어는 한자의 수입과 함께 생겨났지만 고유어와 병존하는 하나의 계열로 형성되기 시작한 력사는 신라의 3국 통일과 련계시키는 것이 지당하다.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한 한자어체계가 우리 글자가 만들어진 중세에 이르러 완전히 확립되었다. 이렇게 고유어와 더불어 이원체계를 확립한 한자어의 증가추세는 이미 막을 수 없었다. 중세에 이미 한자어가 체계를 확립하였다는 리유는 아래와 같다. 이 시기에 이르러 고유어로 쓸 수 있는 것도 한자어로 쓰기 시작하였으며, 고대로부터 명사적 단어에 국한되어 쓰이던 한자어가 체언적 단어만이 아니라 용언적 단어에도 활발히 쓰이고 있다. 한자어가 기본어휘, 일반어휘, 상용어휘 그리고 구두어와 서사어 등 어휘체계의 여러 방면에 침투되고 모든 품사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에 벌써 고유어 어음법칙에 따라 변화하여 한자와의 련계가 끊어지고 고유어화한 한자어

가 대량 출현하였으며 한자거나 한자어가 고유어요소와 함께 새 단어를 손쉽게 조성하고 있다. 한국국립국어연구원 1993년 편 『15세기 한자어 조사 연구』에 수록된 ‘ㄱ’첫소리 15세기 한자어는 2391개인데 그중의 64%인 1525개가 1999년 편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림말로 수록되었다. 이것은 중세의 한자어의 다수가 생명력을 가지고 계승되어 현대까지 쓰임을 설명해 준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자에 기초해서 창조했거나 혹은 차용한 것으로서 우리말 어휘구성 속에 들어온 한자어이며 해당시기 우리 한자음에 부합되는 한자어이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한자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동의적 관계에 있던 고유어와 한자어 사이에서는 생존경쟁이 생겨 병존하던 데로부터 한자어에 의한 고유어의 교체현상이 체언적 단어, 용언적 단어, 부사적 단어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리조말기에 이르러 한문을 공식적인 서사어에서 제거한 것은 긍정적이었지만 의연히 정음과 한자를 혼용하였기에 한자는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근대 말기에 이르러 서방과 일본의 경제, 문화의 전래로 하여 새로운 한자어가 급증하였다. 이 시기의 한자어는 중국어에서 왔거나 조선자체로 만든 것보다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이 다수가 되고 있다고 추측하게 된다. 이렇게 수입된 한자어는 또 다시 단어합성과 단어파생을 일으켜 수많은 새 단어들을 산생시켰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자어와 한자어 사이에서도 수많은 단어들이 교체를 일으켰다. 개화기잡지 『소년』과 『청춘』에 올려있는 한자어 총 3,352(인명은 제외)개를 1999년에 출판된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편찬)과 대조해본 결과 잡지에 나타난 한자어가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 14.98%를 차지하였고 수록된 것이 85.02%였다.(연변대 석사학위논문, 김홍련, p.35) 이렇게 보면 20세기 초에 사용하던 한자어의 대부분이 오늘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화기이후 옹근 20세기 새로운 한자어는 계

속 나타났다. 중국 조선어의 경우 오늘날 ‘自由市場, 抗美援朝, 保家衛國, 平和共存, 獻禮, 護林’ 등의 수많은 한자어들이 륝속 나타났다. 규범은 되지 않았지만 ‘落實, 賓館, 入伍, 準確’ 등이 쓰이고 있다. ‘高級勞動者, 黨委辦公室’과 같은 정치, 사회적 요인에 의해 산생되는 것, ‘既婚農民, 老人文化室, 老人節’과 같이 조선어 자체에서 생기는 것, ‘大氣候, 涉外婚姻, 後備幹部, 信用社’ 등과 같이 중국어 단어 그대로 음독하는 것들은 수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개관의식(개관식), 경제실력(경제력), 운동대회(운동회)’ 등과 같이 한국어와 長形으로 이형태를 이루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안전구(안전지대), 국고권(국고채권), 유효기(유효기간)》 등과 같이 短形으로 이형태를 이루는 것이 있으며 ‘정기저금(정기예금), 숙박비(숙박료), 공용전화(공중전화)’와 같이 서로 다른 한자 형태소를 쓰는 것도 있다. 중국에서 조선어의 이러한 현상은 피치 못할 국가적, 지역적 원인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 수효가 서로 달라도 한국이나 조선의 경우 역시 한자어는 20세기말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되었음은 부인하지 못할 일이다. 중국이나 조선의 경우 한자사용을 폐지하였다 하더라도 한자어가 계속 나타난 것 역시 사실이다. 오늘날 한자를 쓰지 않는다고 하여도 한자어와 한자와의 련계는 언어의식 속에 남아있다. 한자는 쓰지 않더라도 력사적으로 굳어진, 고유어와 다른 한자어음체계와 한자어휘체계는 정음으로 적혀있는 한자어를 통해 보유되어있다. 이러한 인소들이 수시로 작용하여 한자 폐지 후에도 한자에 기초하였지만 한자로 기사되지 않는 정음표기한자어가 륝속 나타났던 것이다.

우리말 력사에서 한자로 표기했던 정음으로 표기했던, 21세기 현재 한자로 적든 정음으로 적든 한자어는 의연히 자체의 체계속에서 생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어와 나란히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조선어연구에서 이 문제의 과거와 현실을 정시하여야 할 것이다.

한자어에 대하여 그 기원에 따라 국산별로 조선(한국)산, 중국산, 일본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미 앞에서 말한바 있지만 중국산 한자어에는 오래 동안 사용하는 과정에 어음구조나 의미구조에 변화가 생겨 현대한자음과 연계되지 않거나 의식 속에 고유어처럼 느껴지는 완전히 고유어화한 것이 있는가 하면 중국어의 뜻과 음을 함께 받아들인 것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도 력사가 오랜 것은 외래요소임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선어화한 것도 있다. 이런 것 이외의 중국산 한자어의 압도적 다수는 현실 한자음으로 읽는다. 조선어중의 일본산 한자어에는 한자에 기초하여 일본에서 창조한 것도 있고 고대 중국의 단어에 일본에서 새 뜻을 부여한 것도 있다. 그중에는 일본 음독한자어, 훈독한자어, 일본 외래어도 있다. 조선(한국)산 한자어는 력사적으로 총괄해보면 조선 자작한자로 조어한 한자어, 중국한자로 조선에서 조어한 한자어 그리고 리두어와 취음한자어가 있다. 위에서 일부 통계자료를 살펴 본 것과 같이 일단 타국어로부터 조선어에 들어왔거나 조선어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들은 생명력이 강하여 다수가 오늘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자어가 고유어를 밀어내고 고유어를 교체하는 현상도 보기도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일찍 중세를 벗어나면서 벌써 ‘ㄹ름’, ‘온’, ‘즈믄’ 등 고유어가 ‘江’, ‘百’, ‘千’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으며 ‘입꺄, 다슴어미, 아슴, 고마, 즘계, 시러, 바지로이, 가스다, 가스꺄다, 머흐다, 일벗다, 스꺄다, 열이다’ 등과 같은 수많은 고유어가 ‘吐, 繼母, 親戚, 妾, 樹木, 能히, 工巧롭게, 變更하다, 豊富하다, 險하다, 盜賊질하다, 通하다, 婚姻하다’ 등과 같은 한자어로 바뀌어졌다.

한자어를 중국산, 일본산, 조선(한국)산으로 가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력사적인 계보를 존중해서이다. 그러나 이런 분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현실적인 각도에서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다. 중국산 한자어 가운데서 고유어화하여 한자와 관계를 끊은 것을 기원의 각도를 떠나서 현실인의 의식으

로 볼 때 의연히 한자어라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언어 발달의 견지에서 응당 재고의 여지를 두어야 할 문제이다. 중국산 차용어중 중국음으로 차용되어 사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외래어에 귀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전들에서 《수수》, 《시금치》 등을 외래어라고 표기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현대인은 외래어로 의식하지 않는다.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올림말 ‘수수’, ‘시금치’를 풀이한 다음 한뜻말로 ‘축서’, ‘적근채’를 제시하고 있다.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풀이하고는 『훈몽자회』에서는 ‘蜀黍’, ‘飜老’에서는 ‘赤根菜’로 되었다는 정보만 주었다. 아무튼 사전들에서 외래어임을 밝히지 않은 것은 그것들을 고유어 화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말해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부류에서 중국음으로 차용하였으나 다시 조선독음으로 이전한 것은 두 말할 것 없이 현실 한자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산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된다면 조선(한국)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조선산에서 자작한자단어와 중국한자단어는 그것이 한자어임이 문제시되지 않지만 리두어와 취음어는 문제가 생긴다. 그 원인은 이것들은 원래 고유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한자를 빌려 썼을 뿐이기 때문이다. 리두어에서의 음은 한자의 음이나 뜻에서 왔거나 혹은 기타 방식으로 된 음이어서 한자의 전통적인 현실음 혹은 한자의 원 뜻과는 련계가 되지 않는다. 취음어에서 한자독음은 조선식 독음이지만 고유어 단어가 먼저 있었고 한자는 고유어 단어가 있는 연후 오직 그 표음수단으로만 가차하였을 뿐이다. 취음어 한자의 뜻은 먼저 있는 고유어의 의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거나 牽強附會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들에 근거하여 우리는 현실 언어생활의 안광으로 고찰하면 중국산 한자어라 하여 다 한자어라 할 수 없고 한자에 기초했다 하여 다 한자어가 되는 것도 아님을 지적하게 된다. 그리고 단순히 한자어라는 한 단

어으로써 한자와 련계되는 일체 단어들을 다 개괄하지 말아야 함을 느끼게 된다. 기원에 따른 부류와 언어현실에 의한 분류를 각각 별개의 명사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기원적으로 볼 때 중국의 한어에서 온 단어그룹들을 漢源詞라 함이 타당하다. 이 말은 오늘 처음 만드는 말이 아니다. 한원사란 곧 '漢語 起源의 詞'로 리해할 수 있다. 한자로 되었다는 것과 중국어에서 왔다는 것은 다르다. 그것은 한자로 된 단어라 해서 다 중국의 한어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에서 말했듯이 한자는 중국한자도 있고 한국한자도 있으며 한자로 된 단어는 한어에서 수입한 것도 있고 한국 자체로 만든 것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자로 되었지만 중국어에서 온 것이 아닌 부류들을 한원사와 구별하여야 한다. 조선어의 漢源詞에 대하여 '上古漢語 音係의 차용어'로서 '中古漢語음과 거리가 아주 멀어 消亡되었거나 고유어에 轉入한'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다. 이 견해는 오직 중고 한어음을 보유한 것만을 '漢字語'(현실한자음을 절운체계로 보는 것 같다)라 하고 『中古漢語音係』에 어긋나는 상고한어 차용어는 '漢源詞'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고음계에 속하지만 이미 고유어체계중에 들어간 것은 한원사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우리는 확실히 한자어와 한원사의 개념을 구별할 필요를 느낀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어 한자어를 일률 다 한어에서 유입한 한원사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반면 현실적으로 한자와 관계 없는것 역시 기원을 따져 한자어라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원사의 범위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위의 견해를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 첫째, 상고한어음계에서 수용하여 고유어에 전입한 것 혹은 중고한어음계에서 수용했으나 고유어에 전입한 것만을 가리킬 것이 아니라 상고, 중고, 근고거나 현대거나를 막론하고 무릇 어느 시기든 그 기원이 중국어에서 수용한 단어이면 모두 한원사라 하여야 한다. 둘째, 차용방법상 음독(조선독음)이나 음역(중국음

차용)이나에 관계없이 그리고 수용 후 고대음에서 현실음으로 치환되었거나 중국음에서 조선음으로 치환되었거나를 막론하고 중국산이면 한원사에 귀결시켜야 한다. 셋째, 현실적으로 한자와 연계되지 않더라도 중국어기원임이 어원적 분석으로 가능한 것(례를 들어 고유어화한, 이른바 귀화어같은 것)은 한원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 직접 만든 한자어와는 달리 중국한자어에 새 뜻을 부여한 일본산 한자어는 중국에서 직접 온 한원사와는 달리 간접적 한원사라 할 수 있다. 한원사란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역사적 기원을 기본으로 하는 것임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아주 자명하다.

한자어에 대하여 '이른바 조선어의 한어차용어는 전통적으로 다만 중고한어음계의 단어만 가리키는데 이를 학계에서는 <한자어>라 일컫는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이 주장은 틀린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중고한어음계와 조선 현실한자음의 관계, 중고음의 변화와 조선음의 변화와의 관계 등을 해명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원사가 역사적인 기원의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한자어는 언어생활 현실을 기준의 중점으로 하여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이미 앞에서 가끔 말한 바 있으므로 간략히 총괄하여 지적하려 한다.

첫째, 한자어는 반드시 한자에 기초하여 조어한 것이어야 하며 또는 조어된 기성 단어에 기초하여 파생되었거나 합성된 것이어야 한다. 둘째, 한자어는 반드시 조선어 어휘구성 속에 들어온 것이어야 한다. 셋째, 한자어는 반드시 한자와 연계되며 한자로 적을 수 있어야 하며 한글로 표기된 것이면 한국음에 맞는 한자로 치환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한자어는 한자로 기록했든 한글로 기록했든 반드시 한자독음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위의 관점에서 보면 조선어에 수용되지 않은 일본 한자어, 중국어 단어는 우리말 한자어가 아니다. 혹 그런 것들이 임시 문자로 적혔을 경우에도 그것이 우리

말 어휘 속에 자리 잡지 않은 것이면 우리의 한자어라 볼 수 없다. 레로 ‘어 언(語言)’이란 단어가 고유명사 조성부분(레:北京語言文化大學)으로 신문에 쓰였다 할지라도 ‘言語’는 한자어가 이미 있으므로 이 단어가 수용되어 독자적으로 쓰일 가망성은 없다. 이 경우 이것은 우리말 어휘구성 속에 수용될 수 없으므로 위의 두번째 기준에 의해 조선한자어라고 하지 못한다. 우리말에는 중국산 한자어 ‘木棉’이 지금 ‘무명’ (木棉>무면)무명과 ‘목면’ 두 가지로 쓰이고 있다. 여기서 전자는 한국어 어휘구성 속에 자리 잡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한국독음이 아니라 중국음에서 온 것이므로 위의 네 번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한자어라 할 수 없다. 단어 ‘사냥’은 원래 한자어 ‘山行’이 여러 가지 어음변화를 하여 변화된 말이다. 현대인의 의식 속에서 이 단어를 ‘山行’이라는 한자와 연계할 수 없다. 따라서 위의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의해 한자어라 할 수 없다. ‘붓’은 중국어 ‘不律’ 혹은 ‘筆’에 유래한다고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선한자음에는 ‘붓’이라는 음이 없다. 이것 역시 한자와 연계 안 되기에 한자어라 보기 어렵다. 이처럼 고유어화한 한자어는 현실적으로 고유어에 귀화시킴이 타당하다.

본 문장에서 우리는 한자어란 무엇이며 한원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나름대로 말하였다. 아울러 중국산 한자어, 일본산 한자어, 조선(한국)산 한자어와 그 내부의 부동한 부류도 나누어보았다. 그러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한자어라 하여 꼭 한원사가 되는 것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한원사라 하여 꼭 현실의 한자어가 되는 것도 아님을 지적하였다. 한자어에는 한원사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한원사에도 한자어인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 또 한자로 기록되었더라도 따지고 보면 한자어도 한원사도 아닌 것이 있음도 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한원사와 한자어를 구별하여야 한다. 물론 어떤 단어에서는 어원을 따지기 어려우므로 원래의 고유어인지, 아니면 일찍 차용했던 고유어화한 한원사인지를 분간하기 어렵거나 또 한자로 표기할 수

있으나 중국산 한자어인지(혹은 일본산), 조선산 한자어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등 여러 가지 난해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은 계속 연구를 심화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현실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문제를 고찰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래에 이상에서 말한 한자어와 한원사의 관계를 도표로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기원	분류	한자에 기초하여 산생	현실어음	한자표기	산생경로	어휘구성	현실어휘 체계	漢字語	漢源詞
중국산	고유어화	중국한자	한자와 관계없음	불가능	직접차용	조선어휘	고유어	-	+
	조선독음어	중국한자	조선독음	가능	직접차용	조선어휘	한자어	+	+
	중국독음어	중국한자	중국음유지	불가능	직접(구두)	조선어휘	외래어(일부 고유어)	-	+
		중국한자	조선독음전환	가능	직접(구두)	조선어휘	한자어	+	+
일본산	일본한자어	중국한자	조선독음	가능	직접차용	조선어휘	한자어	+	-
	중국한자어에 새뜻	중국한자	조선독음	가능	간접차용	조선어휘	한자어	+	+
조선(한국)산	자작한자어(1)	조선한자	자작조선독음	가능	직접조어	조선어휘	한자어	+	-
	자작한자어(2)	중국한자	조선독음	가능	직접조어	조선어휘	한자어	+	-
	리두어	고유어	이두음	불가능	직접조어	조선어휘	고유어	-	-
	취음어	고유어	조선독음	가능	직접조어	조선어휘	고유어	-	-

【참고문헌】

■ 저서 및 논문

- 박용찬, 『2002년 신어』, 서울, 한국국립국어연구원, 2002.
李基文, 『國語語彙史研究』, 서울, 東亞出版社, 1991.
강신항, 『현대국어 어휘사용의 양상』, 서울, 太學社, 1991.
北京大學, 『言語學論叢 第十輯』, 北京, 商務印書館, 1983.
李得春, 『漢文與中國音韻』, 牡丹江,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1998.
리득춘, 『조선어 어휘사』,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1987.
국립국어연구원, 『15세기 한자어 조사연구』, 서울, 1993.

Abstract

Binary Systems of Korean Vocabulary and Words originated from China

Lee, Tok-Chun

Chinese Character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our Korean vocabulary system. With its import, the Korean Language formed the binary system, using both our own language and the chinese characters. Many Japanese words were newly added in early modern period as a result of the colonization by Japan. Among these languages in Korean Language, I defined Chinese language group as Hanwônsa (Words Originated from China) according to rules below: First, Hanwônsa are imported from China. Second, their pronunciation is linked to Chinese Language. Third, the linguistic analyzed form is tinted with Chinese originated words. On the other hand, Hanjaô (Korean Chinese character) are the words that are created and combined with the past words. Also they are liable to be recorded in Korean Chinese characters. Finally, they accord to Korean pronunciation rules.

Key Word

Korean Chinese Vocabulary system, Words originated from China, Korean Chinese Character